# 이웃 곗돈 100억 들고 꼭두새벽에 튄 부부

## 광주남부경찰 수사착수
## 피해 주민 100여명
## 아들 결혼자금 등 떼여

60대 부부가 동네 이웃들에게 곗돈 명목으로 받은 수 십억원을 떼어먹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민들 사이에 이뤄진 돈 거래다 보니 아들 결혼 자금이나 치킨집을 하며 모아온 돈을 떼인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남부경찰은 A(여·55)씨 등 3명이 지난 13일 김모(69)씨 부부에게 곗돈 9000만원을 떼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외에도 피해를 본 주민 13명이 16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신고가 잇따르는데다, 이들 주민 대부분이 수천만원의 돈을 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피해 주민들은 100명 가까운 서민들이 입은 피해액만 1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김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순번계'를 만들어 순번에 따라 2000만원 정도의 곗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순번이 된 주민에게 '나중에 받으면 더 많은 이자를 챙겨갈 수 있다'며 곗돈을 주는 것을 미루다 떼어먹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했음에도, 곗돈 미루는 일이 계속되자 김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과 집을 찾았다가 이들의 도주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주민들은 김씨 부부가 21명이 한 팀을 이뤄 매월 최소 50~100만원씩 부으면 원하는 순번에 1100만~2100만원 정도의 곗돈과 이자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를 운영하면서 주민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 부부가 월산동과 주월동 등에서 오랜 기간 목욕탕과 식당을 운영했다는 점을 믿고 1000만원이 넘는 계에 여러 개 가입하는가 하면, 수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빌려준 주민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 B(여·58)씨는 "매월 100만원씩 내는 계 3개를 가입했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까지 모두 8500만원을 고스란히 떼었다"며 울먹였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첫 고소장이 접수된 뒤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액 규모를 파악한 뒤 범인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혁신학교 간 학생들 성적 떨어졌다

## 본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
## 입학 당시 점수 기준
## 유사한 학교와 비교하니
## 기대점수 '마이너스'

학생의 학력 향상에 학교가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혁신학교들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일보가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혁신학교들의 교과별 향상도는 대체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향상도는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 정도를 측정한 지표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를 입학 당시(초등학교 6학년) 성취도 점수와 비교해 산출된다. 입학 당시 성적이 유사한 학교들이 3년간 중학교에서 배우면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점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기대점수보다 높으면 플러스(+), 낮으면 마이너스(-)다. 예컨대,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국어교과 성취도 점수가 215점이고 입학 당시(초등학교 6학년) 점수를 바탕으로 한 기대되는 성취도 점수가 200점이라면, 이 학교의 국어교과 향상도는 7.5%다.

광주지역 혁신학교들은 대체로 향상도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3년차인 북구 A중학교는 올해 교과별 향상도에서 국어 -2.1%, 수학 -2%, 영어 -3.2%를 기록했다. 이 학교의 지난해에도 국어 -4.3%, 영어 -1.5%를 보였다. A중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과다.

광산구 B중학교는 성취도는 기대보다 높았다. 국어(0.4%)와 수학(1.4%)은 플러스를, 영어(-0.7%)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년차인 광산구 C중학교는 올해 향상도가 국어는 0.4%로 향상됐지만 수학(-0.1%)과 영어(-2%)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학교의 지난해 향상도는 국어(-2.7%), 수학(-1.4%), 영어(-0.9%)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다.

광산구 D중학교는 수학(2.1%)과 영어(0.2%)는 향상됐고 국어(-0.1%)는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국어(-3.4%), 영어(-1.8%) 교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들 혁신 중학교에는 일반학교보다 학급당 학생수와 예산 지원에서 혜택이 주어졌다.

A중학교와 B중학교에는 올해까지 3년간 평균 2억8000만원이 더 지원됐고, C중학교와 D중학교에는 2억원가량 예산이 추가됐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에서도 북구 6학군 내 혁신학교는 4월1일 기준으로 29.2~31.5명인 반면 일반학교는 33.6~35명으로 학급당 2~6명 차이가 났다.

그만큼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학습환경이 우수했지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보여주는 향상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학교 향상도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없앤 순수한 학교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라며 "향상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그 학교의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일동초·무등중·산정중·월곡중·전남여상·광주선광학교·광주선명학교·광주선우학교 등 8개 학교를 내년도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예비혁신학교에는 효동초·새별초·효천초·건국초·일곡중·신용중 등 6개교가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난방 땐 문 열어놓지 마세요"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1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점에 들어가 에너지 절약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31사단 총기사고 초소에서 이등병 사망

육군 부대에서 초소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실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북한 이상 동향에 대비해 전 군이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데다, 지난 7월 예하부대에 이어 총기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6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 31사단 내 경계 초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 이모(21) 이병이 숨졌다. 이 이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임병과 함께 부대 내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이었다. 31사단측은 "총기 사고 후 군의관이 검안한 결과, 이 이병이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로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초소에는 이 이병만 있었고 실탄 1발이 발사된 이 이병 소유 K2 소총도 발견됐다. 선임병은 초소 밖으로 나와 주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아니다"

## 대학입시 일정 예정대로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김윤석 수영선수권 유치위 총장 징역 1년 6월 구형

## 공문서 위조 혐의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무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 혐의를 줘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개인이 아닌 국가, 시민 위신의 문제인만큼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스캔해 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박으로 수 억 날린 40대 … 컨테이너 훔쳐 팔아 또 탕진

쌍나팔

○…도박에 빠져 수 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철창행.

○…16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자 이모(44)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에서 완도항으로 입항된 밀감 운송용 컨테이너(2.5mx2.5mx2.5m)를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까지 배달한 뒤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에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54개(시가 2억5000만원 상당)를 팔아치웠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강원도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수억원대 재산을 모두 날렸던 이씨는 훔친 컨테이너를 팔아 챙긴 돈마저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